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30 권 6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487)	봉헌 (512)	성체 (165)	파견 (101)
---------	----------	----------	----------	----------

제1독서 | 이사 60,1-6

화답송 |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 에페 3,2.3ㄴ.5-6

복음환호송 | 마태 2,2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 마태 2,1-12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2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1/19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6	유 요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2/2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70	\$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15	김 마론/ 김 헬레나	1/11	유 요한/ 유 마리아
2/22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8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2/29	손 아놀드/ 손 쟈마	1/25	홍 마르코/ 홍 아녜스
3/7	이 글라라/ 장 글라라	2/1	김 요아킴/ 고 안나
3/14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올해 지고 갈 십자가

-임주빈 모니카 | KBS 심의위원, 시그니스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 서울 회장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야 하기에 제가 짊어질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그 십자가는 제가 감당해야 할 고통인 동시에 제가 얻을 구원의 기쁨과 영광이 되겠지요. 목걸이처럼 제 목에 매달려 달랑거릴 정도로 가벼운 십자가라면 지고 가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겠지만, 그런 만큼 은총과 영광의 기쁨도 크지 않을 것만 같아서 올해도 너무 가벼운 십자가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마다의 십자가도 결코 그런 가벼운 십자가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평소에 남편이 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의견이 안 맞아 다투거나 속상할 때면, ‘아휴~ 저이가 내 십자가야, 십자가. 저이가...’ 하면서 가슴을 치곤합니다. 물론 어찌할 수 없기에 받은 농담처럼 하는 말입니다. 또한, 남편 에겐 제가 십자가 같은 존재겠지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부피도 무게도 다 제각각이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 돈, 정신적 고통에 빚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해서 짊어진 것이 아니기에 벗어나기 힘들지만, 고통을 감내하고 끝까지 지고 가서 내려놓는 순간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천재적 희극배우이자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이 보면 멋있고 행복해 보이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1 월 2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시

다음 임원회의는 1 월 5 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에페소서): 매주 주일미사 후 (둘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Homeless Feeding 2 월 1 일 st. Vincent de Paul center

주소: 300 Bakers St, Bakersfield, CA 93305

매년 해오던 홀리스 조식봉사를 위의 날짜에 하게 되었습니다.

양말 선물을 위한 헌금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따뜻한 정성 부탁드며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도 미납 교무금 납부 안내

지난 해 납부하지 못한 교무금을 정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미사 책값 안내 (\$50)

올해 미사 책값을 그레이스 자매님께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용 영수증 신청

세금 보고용 교무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님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만 어느 누구, 어느 가정이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힘들고 슬픈 일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앞길을 내다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워지는 십자가는 항상 일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아침, 새해 아침에 나의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올해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일 년을 살아가게 될까, 오늘은 내게 어떤 십자가가 지워질까? 내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 일터, 이웃, 사회, 국가의 십자가까지 같이 지고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의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고통과 기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의 십자가가 너무 버겁고 무거우면 내일의 십자가는 조금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게 되는 그때에 고통이 기쁨과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